

쓰리래빗츠, 매뉴얼 솔루션 ‘외산 대체’

〈매뉴얼웍스〉

스타트업 쓰리래빗츠가 제품 도움말 문서, 기술 설명 문서, 자주묻는질문(FAQ), 지침 문서 등 매뉴얼 형태의 문서 정보들을 온라인에서 공유하고 작성하는 매뉴얼 솔루션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깃북, 도큐먼트 365 등 외산 솔루션이 국내 매뉴얼 솔루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IT서비스 유지관리기업 심스소프트(대표 김선호)는 쓰리래빗츠와 협력해 국산 매뉴얼 작성 솔루션 ‘매뉴얼웍스’를 민·관 시장에 공급, 외산 제품이 선점한 수요를 대체하는데 적극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매뉴얼은 소비자가 제품·서비스를 효과적이고 친숙하게 사용 또는 유지 관리하고 해당 특징과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문제를 미리 해

심스소프트와 협력 민·관 공급 외산 선점시장 ‘토종 반격’ 예고

다양한 형식 변환 접근성 확장 문서작성 시간·비용 절감 장점 ‘경험해보지 못한 작성능력 제공’

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이해도와 편의성을 얻고 더불어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 성격을 띄고 있어 매뉴얼 작성은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첫걸음이다.

심스소프트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는 디지털 세상에서 매뉴얼은 모든 제

품, 시스템, 서비스의 필수 구성 요소로 부상하면서 매뉴얼 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산 제품 매뉴얼웍스가 곧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UI가 불편한 외산 매뉴얼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거나 한글, 워드, PPT를 이용해 매뉴얼 작성관리를 하는 기업이 적지 않게 많다”면서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국산 매뉴얼 툴은 거의 없다” 말했다.

‘매뉴얼웍스’는 문서작성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작업의 일관성을 제공하며, 협업을 강화하고, 기술 문서를 HTML, PDF, 전자책 등 여러 형식으로 쉽게 변환해 문서 접근성을 확장한다. 궁극적으로 일관성·가독성·정확성 등 문서 품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문서작

성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매뉴얼웍스는 도큐먼트360, 깃북 등 외산 솔루션과 겨뤄도 품질과 성능에 손색이 없는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 삼성SDS, 롯데건설, SK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증권거래소, 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업에서 매뉴얼웍스를 활용해 다양한 업무에 대한 도움말, 매뉴얼, 사용자 가이드, 지침서, FAQ 등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김선호 심스소프트 대표는 “현재 매뉴얼웍스는 공공기관 시장 진입을 위해 GS인증 절차를 밟고 있어 조만간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문서 작성자에게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편리한 문서작성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케이티엔에프, x86서버 ‘KR580S2’ 레드햇 리얼타임 8.5 인증 추가 획득

실시간 OS 운영 안정성 보장

국산서버 기업 케이티엔에프(대표 이종연)는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KR580S2’ x86서버에 대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리얼타임 8.5 인증을 추가로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KR580S2’ x86서버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과 ‘레드햇 오픈스택 15·16’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실시간 운영체제(RTOS)는 국방·항공 우주산업에서 VxWorks 계열이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 오픈리눅스OS에는 다양한 멀티태스킹 도구, 프로세스들이 정확한 시간 주기로 수행되도록 커널 단에서 타이밍을 맞춰주는 기술이 추가돼 국방,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5G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근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KR580S2 제품은 인텔 최신 기술을

적용한 2U 폼팩터의 고성능 서버로 시트릭스, VM웨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표준 OS에 대해 모든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레드햇 추가 인증을 통해 실시간 OS에 대해서도 운영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홍영찬 KTNF 이사는 “실시간 OS는 이미 우리 일상 생활에 일반화됐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정도로 여러 범주에서 사용되고 있다”면서 “오픈리눅스 서버에서도 실시간성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KTNF는 앞으로도 다양한 x86 서버 관련 인증 획득을 확대하고, 국내·외 우수 기업들과 동반 성장의 IT 생태계 구축을 통해 최신 IT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드림라인-드림조이앤바투-엔피알이노베이션 에코 정화시스템 사업 협력

공공기관 등 타깃 산업군 확대

드림라인(대표 유지창·김성중)은 드림조이앤바투(대표 안평원), 엔피알이노베이션(대표 김유영)과 무방류순환 수세식 에코 정화시스템 사업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3일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각각 통신서비스, 설계와 시공, 제작, 구축이라는 전문 사업을 영위 중인 3사는 MOU를 통해 공공기관,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타깃 산업군을 대상으로 사업 확대에 힘을 계획한다.

무방류 순환 수세식 에코 정화시스

템의 핵심은 급속산화발효조, 호기생물산화반응조, 유기물분해소멸조, 고도처리조, 살수여과여상조, 탈색소독조 등으로 꾸려졌다. 물리적이며, 생물학적인 처리 과정을 보장한다. 오폐수 슬러지 수거와 상하수도 관로가 필요 없다. 최종 처리수는 수세식 변기의 세정수로 순환 재사용한다.

구축 과정에서 드림라인은 자사 토털 솔루션 플랫폼을 접목해 국내의 시장에 에코 정화 시스템을 공급할 예정이다. 드림조이앤바투는 자사 엔지니어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설치와 시공을 도맡는다. 엔피알이노베이션은 무방류 순환 수세식 에코 정화시스템



왼쪽부터 김유영 엔피알이노베이션 대표, 유지창 드림라인 공동대표, 김성중 *공동대표, 안평원 드림조이앤바투 대표, 김석호 엔피알이노베이션 기술고문 이 협약 후 기념촬영했다.

공법 기술을 제공한다.

드림라인 관계자는 “지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에 이어 ESG 경영에 걸맞은 친환경적 환경보호 사업을 확대해 진행하게 됐다”며 드림라인 환경보호 사업사례가 여타 기업과 산업 분야에 좋은 참고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드림라인은 우수한 품질의 전국망 광케이블 네트워크를 보유한 ICT 인프라 전문 기간통신사업자다.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전용회선과 인터넷 회선, 인터넷전화 사업, 공용화기 지국 사업, IDC센터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중권기자 lim9181@etnews.com

화물운송 디지털전환·페이퍼리스 제휴

포시에스-긱간로지스, AI 플랫폼 프리모·이폼사인 연동

전자문서·전자계약 솔루션 기업 포시에스(대표 박미경)는 화물운송 중개 플랫폼 기업 긱간로지스와 ‘화물운송 시장의 디지털 전환·페이퍼리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사는 이를 통해 긱간로지스가 개발 중인 AI 기반 화물운송 중개 플랫폼 ‘프리모’와 전자계약 ‘이폼사인’간 연동을 완료한다. 전자인수증을 활용한 운송비 정산 및 지급 절차 간소화, 전자근로계약을 통한 계약 프로세스 개선 등 물류 종사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종이로 사용하던 인수증은 훼손 및 분실, 인수증 전달 및 처리에 소모되는 시간 비용, 완료된 종이 인수증의 보관 및 관리 어려움 등이 문제였는데, 전자인수증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페이퍼리스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다.

박미경 대표는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며 물류 산업의 위상은 눈에 띄게 높아졌지만, 급격한 성장에 비해 디지털화는 여전히 매우 더딘 상태”라며



박미경 포시에스 대표(오른쪽)와 김자영 긱간로지스 대표가 이폼사인으로 작성한 협약서에 서명을 마친 후 기념촬영했다.

“전자인수증, 전자근로계약 등 물류 종사자들의 업무에 전자계약이 빠르게 적용된다면, 국내 물류 시장의 디지털 전환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

긱간로지스는 빅데이터 기반 운임비 예측 조회, 핀테크 기반 빠른 운송료 지급, 전자인수증 서비스 등 화물을 발송하는 화주와 운송을 담당하는 차주들 연결해 주는 AI 기반 화물운송 중개 플랫폼을 제공한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아라드네트웍스, 펜트힐 캐스케이드에 ‘아라드홈’ 공급

〈스마트홈 해킹방지 솔루션〉

아라드네트웍스(대표 정현우)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펜트힐 캐스케이드’에 스마트홈 해킹 방지 솔루션 ‘아라드 홈(ARAD HOME)’을 공급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사가 구축한 아라드홈은 세대별로 독립 네트워크를 구축해 해킹 피해가 단지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다. 이 과정에서 제로트러스트 기반 접근

제어 기술을 통해 안전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IoT) 해킹 사례는 세계적으로 매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와 기술 기준’ 개정을 통해 국내 홈네트워크 설비를 의무화했다.

정현우 대표는 “최근 개정 고시된 행정규칙에 따라 신축 아파트와 리조

트, 호텔, 주상복합, 빌라 등에서 아라드홈 도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안정적 스마트홈 환경을 보장하고, 고객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펜트힐 캐스케이드는 롯데건설이 지은 건물이다. 지하 7층에 지상 18층 규모, 13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을 제공하는 주거시설이다.

2012년 출범한 아라드네트웍스는 네트워크 가상화 기반 보안솔루션 기업이다. 임직원 대부분이 연구개발자다. 개발진은 시스코와 국내외 대기업에서 평균 20년간 네트워크 개발을 도맡아온 베테랑이다.

회사 주력사업은 스마트홈 네트워크 보안 사업이다. 글로벌 대표 전자기업과 공공 건설사, 민간 건설기업 등에 관련 솔루션을 공급했다. 공공기관과 지자체 20여 곳에 솔루션을 공급했다.

임중권기자 lim9181@etnews.com

할인과 혜택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새해에도 콘텐츠는 아이클릭아트 와 함께하세요.
1666-3571 www.iclickart.co.kr